

조계종 고시위원회 2·3급 승가고시 확정

조계종 2·3급 승가고시가 오는 10월 24일 오전 10시와 10월 23일 오전 9시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각각 실시된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5월 13일 회의를 열고 2·3급 승가고시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2급 승가고시는 '논술'과 '설법시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1교시가 진행되고 2교시에는 수행이력 평가와 개별면접이 실시된다. '논술'은 6개 주제 중에서 승가고시 당일 3문제가 출제되며 응시자는 하나를 선택해 2000자 내외로 논술하면 된다. '설법시연'은 세대, 직능 및 기타 영역 등 설법대상자와 주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응시자는 고시 당일 접수처에 설법문안 요약문을 제출해야 한다.

비구 중덕 또는 비구니 정덕 법계 수지 후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연수교육 누적점수 150점 이상을 취득, 1999~2000년 구족계를 수지하고 비구 중덕 또는 비구니 정덕 법계 수지 후 6년이 경과한 자로서 교육·수행·수입경력 중 4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연수교육 누적점수 150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3급 승가고시는 주관식(단답형) 문제와 논술, 수행이력 평가 및 면접으로 구성된다. 주관식은 조계종 홈페이지에 공지된 예상문제집에서 50문제 출제된다. 논술은 6개 핵심주제 중에서 승가고시 당일 3문제가 출제되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2011-1809 신성민 기자

군·병원 법당에 불서 1천5백권 자비나눔

진흥원, 포교활성화 사업 일환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에서는 5월 14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 포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군법당과 병원법당에 불서 1,500여 권을 전달했다.

전국 군법당 140곳과 병원법당 25곳에 전달한 불서는 도서출판 솔바람과 도서출판 민족사, 불광출판사, 도서출판 운주사에서 발행한 <부처님 생애> <나라를 구한 스님 사명대사> <교양으로 읽는 불교> <성지에서 쓴 편지> 등 단행본과 만화불서 20종 1,500여 권이다.

한편,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2013년 전국 병원법당 및 전국 교도소에 만화불서 1천여 권을 △2014년 전국 교도소와 군법당 장병들에게 1천8백여 권을 지원하는 등 자비 나눔을 위한 불서보급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지구 환경문제, 지혜·자비 연대로 풀자”

녹색불교콜로키엄, '생명권과 생태민주주의' 1차 포럼

환경문제는 전지구적 화두이다. 탄소발자국 등의 개념이 확산되며 정부와 기업들이 앞다투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대안에너지, 탄소 절감 제품들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다. 또한 생명 권리와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도 차츰 활발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생명권, 생태민주주의와 불교적 함의를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생명평화녹색불교콜로키엄은 5월 14일 화정문화아카데미에서 '제1차 생명평화녹색불교 포럼-생명권과 생태민주주의 그리고 불교'를 열고 생태민주주의와 불교의 상호 관계를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제마 스님은 상호관계성을 중점을 두는 불교가 생태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제마 스님은 '불교의 생명사상 및 생명권의 시각'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모든 생명은 서로 중층적으로 교섭하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며 "모든 구성원의 번영과 상호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는 사회이념인 생태민주주의

를 꽃피울 종교로 불교가 꼽히는 이유다. 생태민주주의는 불교의 지혜수행과 자비수행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혜수행은 연기와 사상제, 팔정도를 깨달아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이며, 자비수행은 분노와 적의, 성냄, 불만 등을 다스리기 위한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게 제마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지혜수행은 법계연기의 세상에서 공동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수행이고, 자비수행은 이러한 공동선을 일으키기 위한 실천적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지구적 생태문제의 해결은 이 같은 지혜와 자비의 연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제마 스님은 주장했다.

제마 스님은 "불교의 생명은 조목을 포함한 모든 생명 있는 것과 함께, 연기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무정 등의 삼라만상을 포함한다"면서 "전 지구적 혹은 개별 지역의 환경문제, 폭력, 전쟁 등의 갈등과 반목상황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지혜와 자비의 연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평화녹색불교콜로키엄은 5월 14일 화정문화아카데미에서 '제1차 생명평화녹색불교 포럼-생명권과 생태민주주의 그리고 불교'를 열고 생태민주주의와 불교의 상호 관계를 논의했다.

제마 스님, 불교 생명사상 조명 "지혜는 공동선, 자비는 실천관 지혜·자비 확대가 생태문제 해법" 생명 상호관계서 실마리 찾아야

이러 토론자로 나선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객체를 강조한 생명의 권리보다 생명 상호의존과 흐름으로 이해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불교적 관점에서 생명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교가 생명의 종교이다'와 같은 일반적 명제를 쉽게 수용해서는 안된다"며 "너무 쉽게 그 명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불교의 역할 등 실천적 쟁점에 관한 고민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의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권리라는 것은 서구사회에서 개별화된 개인과 개체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불교와는 맞지 않다"면서 "생명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기본 속성인 상호의존성,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으로서의 과정성 등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지혜에 근거한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비전연구소장도 생명을 '권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동물보호활동가가 생명권을 이해하는 방법'을 주제로 발제한 김 소장은 "권리라는 개념은 초점을 여전히 '나'에 맞추게 한다. 그러나 보살핌의 윤리는 인간과 생명을 독립된 개체를 넘어 관계 중심적으로 살펴볼게 한다"며 "동물을 함부로 죽여 서안 되는 이유를 생명의 권리가 아닌 보살핌의 윤리와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안건훈 강원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생태민주주의와 미래세대의 권리', 한민희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미래세대와 자연생명존중, 국제적 성공사례'를 주제로 발제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봉은사, 불교계 최초 국악합주단 창단

11명 단원 구성해 14일 첫 공연 매주 목요일 정기무대



서울 봉은사는 최근 11명을 단원으로 한 '봉은국악합주단'을 창단하고, 5월 14일 경내 중무연 잔디마당에서 첫 공연을 진행했다.

한국 국악의 아름다움을 전할 국악합주단이 불교계 최초로 창단돼 첫 선을 보였다.

봉은사(주지 원학)는 최근 11명을 단원으로 한 '봉은국악합주단'을 창단하고, 5월 14일 경내 중무연 잔디마당에서 첫 공연을 진행했다.

봉은국악합주단은 김희경 예술감독과 안승철 지휘자를 중심으로 공개오디션을 통해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북, 장구, 소리꾼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소리꾼은 남도창을 하는 이이화 씨와 경서도민요 이미리 씨가 선발됐다.

첫 공연에서는 아바의 '댄싱 퀸', 이선희의 '인연' 등 대중곡과 경기민요 메들리인 '노래가락', '청춘가', '벚노래'에 이어 봉은사 합창단과 함께 '사리여', '산사의 봄', '삼제인연', '부처님오신날' 등 찬불가가 선보여졌다.

첫 공연을 이끈 안승철 지휘자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첫 공연이어서 뜻 깊었다"며 "법당이나 도량에 울려 퍼지는 찬불

고국악곡을 듣고 불심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첫 공연의 소회를 밝혔다.

이날 공연과 관련, 김희경 예술감독은 "악기편성과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연출해 법당음악에 국악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확실하게 보여 주겠다"며 "젊은 국악인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준 봉은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봉은국악합주단은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 봉은사에서 '찬불소리 꽃바람에 흥날리다'를 주제의 공연으로 대중과 만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부처님오신날 홍보대사 동자승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는 5월 11일 조계사 앞 미당에서 동자승 단기출가 보리수 세씩학교 삭발수계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계식에는 전계사로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이 나서 박선우, 박성배, 신도영 등 총 9명의 아이들에게 계를 전했다. 동자승들은 삭발수계식을 시작으로 '보리수 세씩학교'의 출가생활이 시작될과 동시에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행사인 자비의 선물 전달식, 연등 점등식, 경찰청법회, 연등행렬 등에서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했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는 5월 11일 조계사 앞 미당에서 동자승 단기출가 보리수 세씩학교 삭발수계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계식에는 전계사로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이 나서 박선우, 박성배, 신도영 등 총 9명의 아이들에게 계를 전했다. 동자승들은 삭발수계식을 시작으로 '보리수 세씩학교'의 출가생활이 시작될과 동시에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행사인 자비의 선물 전달식, 연등 점등식, 경찰청법회, 연등행렬 등에서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했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동국대의료원·고양시 주지협 상호 지원 협약 맺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3일 명성세미나실에서 고양시주지협의회 회장 보산 스님과 고양시 조계종 신도연합회(회장 이금석)와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고양시 조계종주지협의회 스님과 신도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동국대병원 의료지원 등의 행사를 지원하고, 고양시 조계종

사찰과 신도는 병원 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 시작으로 고양시주지협의회와 신도연합회는 동국대일산병원 발전기금 5000만원 기부를 약속하였고 1차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방문한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여 개원 10주년을 맞은 동국대일산병원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많은 만큼, 최고병원을 만들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격려했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 11 교구 본사

불 국 사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을 향기로운 세상

회주	성타	관장	종상
주지	종우	학장	덕민
부주	정문	총무	종천
교무	정수	재무	성명
사회	정빈	포교	탄경
문화	성요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불국로 38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